

多夕 柳永模 時調의 特質*

박 규 흥**

<국문초록>

국문학사상 최다의 시조를 지은 다석 유영모와 그의 시조를 처음으로 국문학계에 소개한 필자는 이 후속 연구를 통해 그의 시조가 지니는 국문학사적 의의와 특질을 좀 더 세밀하게 밝히고자 했다. 독자적인 神觀을 수습한 종교사상가 다석은 자신의 사상을 2,200여 수의 시조로 읊었다. 국문학사상 종교를 수용한 시기문학은 적지 않았지만 다석의 시조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조선조의 불교가사는 향가 이후 가장 대중화된 종교적인 시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석은 가사를 발표한 적도 있지만, 그가 20년간이나 꾸준히 그의 사상을 담아낸 문학양식은 시조였다. 시조에 종교사상을 이처럼 담아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다석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국문학계에도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

다석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는 시조의 시어에 내포된 의미뿐 아니라 그 시어의 표면적 의미까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의 시조 시어 하나하나에는 고농도의 종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또 극도로 절제된 시적 표현은 매우 특이한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다석은 한글을 자신의 사상을 온전히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로 여겼고, 시조는 그것을 담을 가장 적당한 문학양식으로 보았다. 난해한 그의 시조는 누구에게 보이느냐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결과로 판단된다.

시어 하나하나의 해득이 어렵다고 하여 그의 시조를 더 이상 방기할 수는 없다. 계속 후속 작업이 이어져 국문학사상 최다일 뿐 아니라 가장 독특한 그의 시조문학을 국문학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핵심어 : 향가, 불교가사, 종교사상, 내포된 의미, 표면적 의미, 한글, 시조, 시어, 함축, 문학양식

* 이 논문은 경일대학교 2005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일대

1. 서론

필자는 국문학계에 처음으로 종교사상가 多夕 柳永模(1890-1981)와 그의 시조를 소개한 바¹⁾ 있다. 거기에서 시조문학사상 최다의 작품을 빚어낸 다석과 그의 독특한 시조를 논하였으나,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조명한 데 지나지 않았다. 종교계에서는 다석 연구가 활발한 데 비해, 국문학에서는 여전히 미답의 지경으로 남아 있다. 이제라도 다석과 그의 시조를 국문학사 안으로 끌어들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2,200수가 넘는 다석의 시조는 전례 없이 종교사상을 담고 있다. 기실 국문학사상 종교를 담은 시가문학은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均如 大師(923-973)의 <普賢十種願往歌>가 그렇고 불교가사나 천주교가사가 그렇다. 그러나 시조에 이렇게 종교가 수용된 경우는 볼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종교를 수용한 시가문학 가운데서 다석의 시조가 차지하는 국문학상의 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석 시조의 특질을 그의 시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표현 방법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논구해 보고자 한다.

다석의 종교사상을 담은 난해한 시조문학이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씨울'²⁾에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박규홍,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時調學論叢』 22집, 한국시조학회, 2005. 5-25쪽.

2) '씨울'은 다석이 '民'의 의미로 사용한 순우리말이다. 다석의 제자 함석헌이 즐겨 사용한 덕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 詩文學史的으로 본 多夕 時調의 特質

시조문학사상 개인 창작으로 최다인 2,254수에 이르는 多夕 時調의 대부분은 그의 종교사상을 드러낸 것이다.³⁾ 신앙심의 시문학 수용은 시문학사의 출발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다. 여기에서는 詩文學史上 종교와 관련을 가진 많은 시가작품들 중에서 다석의 시조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신앙과 예술을 제외한 채 인간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인간들에 의해 구가되는 예술과 그들의 신앙 또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동작예술과 언어예술이 융합된 원시 종합예술에는 고대인들의 신앙심이 담겼던 것이 분명하다. 토테미즘·애니미즘 같은 원시종교적인 사고가 신화를 통하여 후대까지 거듭 표현⁴⁾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고대가요 〈公無渡河歌〉와 같은 작품에 내재된 신앙적 요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신앙심을 담은 고대의 노래가 적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그 개연성으로 봐서 어렵잖게 수긍할 수 있다.

향가에서는 문학과 종교와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갈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願往生歌〉와 다섯 살 난 눈 먼 딸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내용의 배경설화가 있는 〈禱千手觀音歌〉는 당대인들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제목만으로도 그 信心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月明師가 지은 〈祭亡妹歌〉역시 불교정신이 녹아든 작품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비록 '純粹抒情

3) 필자는 앞의 논문에서, 2,254수 중 경치를 읊은 것이 2수, 인물에 대한 것이 8수,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 15수, 나머지는 자신의 종교사상을 노래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4)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제3판), 지식산업사, 1994, 61쪽.

詩로 이해하고 싶지, 宗教的 영역에다 이 시를 귀속시키고 싶지는 않다⁵⁾는 주장을 십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에서 불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인용해 본다.

生死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잊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⁶⁾

연구자에 따라 字句 해석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작자 月明師의 宗教觀이 이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당대인들의 정신과 생활 속에 깊이 침윤된 불교가 그들의 작품에 묻어나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이다. 〈풍요〉나 〈도솔가〉 등등의 작품에 자리잡은 불교적 요소도 마찬가지다.

『華嚴經』 권40 「普賢行願品」에서 언급된 열 가지 행실을 사뇌가로 읊은 均如大師의 〈普賢十種願往歌〉 11수는 이전의 작품들보다 불교의 교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均如傳』을 지은 고려 중기의 문인 赫連挺은 본문을 10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第七 歌行化世分者'에서 均여가 쓴 〈보현십종원왕가〉 서문을 소개하고 있다. 均여는 그 서문에 "세속적인 말에 기대지 않고서는 크고 넓은 인연을 드러낼 수 없다. 이에 쉽게 알 수 있는 비근한 일에 바탕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심원한 중

5) 朴魯堉,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181쪽.

6) 金完鎮, 『鄉歌解讀法』,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127쪽.

지를 깨치도록 하고자, 열 가지 큰 서원의 글에 따라서 열한 수의 거친 노래를 짓는다. 중인의 눈에 보이기에선 부끄러운 일이나,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는 부합되길 바란다.”⁷⁾고 창작의도를 적고 있는데, 이 작품이 ‘세속적인 말로 중생을 깨치도록’ 지어진 목적문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셈이다.

佛家에서는 향가 외에도 다양한 문학 양식을 교리 전달이나 포교의 도구로 삼았다. 불교가 문학을 만나 빚어낸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偈頌’을 꼽을 수 있다. 조동일은 元曉(617-686)의 <대승기신론소> 말미에 있는 계송 “諸佛甚深廣大義/ 我今隨分總持說/ 廻此功德如法性/ 普利一切衆生界(모든 부처의 아주 깊고도 넓은 뜻을/ 나는 이제 차례로 다 풀이하고/ 그 공덕을 돌려서 진리의 본성 그대로/ 모든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노라)”를 인용하면서, “이런 데서 사상이 시작되어 나중에 유학의 진리를 찾는 것에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⁸⁾고 언급한 바 있는데, 사상이 문학 양식을 표현의 몸[體]으로 취하는 것은 그 시작을 언제로 보건 필연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조 知訥(1158-1210)의 제자 慧謚(1178-1234)은 불교사상을 문학으로 표출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 인물 중의 한 분이였다. 역대 선가문학의 자료를 집성한 『禪門拈頌』을 편찬한 그는 중국 宋詞 詞牌의 하나인 ‘漁家傲調’의 노랫말 형태를 취한 <漁父詞> 4수를 지어 남기기도 했다. 그 <어부사>는 물론 불교적 思惟를 어부사로 형상화한 것인데, 우리의 어부사로는 最古의 작품으로 현전하고 있다. 『眞覺國師語錄』 補遺篇에 전하는 네 수 중 한 수를 인용한다.

7) 非寄陋言. 莫現普因之路. 今托易知之近事. 還會難思之遠宗. 依二五大願之文. 課十一荒歌之句. 慙極於衆人之眼. 冀符於諸佛之心.(『均如傳』 제7 歌行化世分者)

8) 조동일, 앞의 책, 195쪽.

脫略塵緣與繩墨	속세의 인연이나 규범을 벗어났으니
騰騰兀兀度朝夕	등등울울하게 하루를 보낸다
獨是一身無四壁	오로지 한 몸 사방의 벽도 없으니
隨所適	가는 대로 두어라
自西自東自南北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4-3)

혜심 이후 선문에서 이같은 '어가오'조의 선시가 꾸준히 창작되었는데, 같은 시대를 살며 혜심의 비문까지 썼던 李奎報(1168-1241)가 역시 어가오조의 작품⁹⁾을 남겼다. 문학이 승속을 잇고 시대를 잇는 일임을 확인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불교가 정치적으로 보호되던 고려조에서는 필요성이 덜했겠으나, 핍박의 대상이 되던 조선조에는 적극적인 포교를 통한 자구책이 필요했다. 난해한 계송 혹은 선시의 성격을 띤 작품들로는 대중 속으로 파고 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구의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歌辭文學이었다.

불가에서는 가사를 통하여 부처님께 至誠이기를 요구하면서도 아울러 忠孝를 강조함으로써 불교가 당시의 지배적인 유교적 가치체계와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대중들에게 다가가려 한 것이다. 이렇게 지어진 佛教歌辭는 향가 이후 가장 대중화된 종교적인 시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回心曲〉의 몇 구절을 인용한다.

人間苦行 하는 것이	前生罪로 그러하니
恨을 말고 怨을 말고	마음답아 善心하면

9) 〈登家園遙聽樂聲卽作詞〉

鱗錯萬家遙可按/ 玉樓高處褰羅幔/ 應是筵開紅錦爛/ 方望斷/ 唯聞風送金絲慢
緬想倡兒揜露腕/ 嬌顏奉酒流微盼/ 日脚垂欵人不散/ 遮老漢/ 灰心煽起那堪亂
(車柱環 『中國詞文學論考』, 서울대 출판부, 1982, 245-6쪽)

前生罪를 벗어놓고	後生 貴히 되나니라
임군에게 충성하고	父母에게 孝道하고
부처님께 至誠이면	前生罪며 이생罪를
모도다 버리고	所願대로 되나니라

사람들에게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시가 양식으로 부상한 가사는 다른 종교계의 주목도 받았다. 지리나 풍수를 다룬 〈金囊秘訣〉 〈萬山眞訣〉 등의 도교가사, 그리고 이벽(1754-1786)의 〈天主恭敬歌〉와 정약전(1758-1816)의 〈十誠銘歌〉 등의 천주교가사는 모두 포교에 적합한 가사문학의 기능을 십분 활용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다석도 한때 가사문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 6월 23일자로 발행된 『청춘』지에 〈無限大〉라는 제목의 가사를 발표한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다. 내용은 역시 자신의 종교사상을 밝힌 것이다. 젊은 시절,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법도 하다. 가사의 몇 구절을 인용해 본다.

神이여 靈이여 佛이여 道여
 永生이라 涅槃이라 몇가지로 부른일흠
 無限에서 峙러져온 有限界의 衆生들이
 無限품에 못드러서 부르지진 아닐년가¹⁰⁾

다석이 몇 편의 가사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다석이 시조와 한시, 그리고 현대시¹¹⁾를 남긴 1955년 4월 26일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의 일기에는 가사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냥 신앙에 대해 넘쳐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 방

10) 『多夕日誌』 제4권, 弘益齋, 1990, 569쪽.

11) 필자는 앞의 논문에서 다석이 남긴 현대시를 250여 수로 언급한 바 있다.

법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담은 그릇으로 시조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退溪 李滉(1501-1570)이 兒輩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시켜놓고 안석에 기대어 들을 요량으로¹²⁾ 〈陶山十二曲〉을 지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이미 시조란 문학양식이 깊은 철학적 이념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가사에 비해 시조는 종교와는 먼 거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다석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고농도의 종교사상을 시조로 육화했다. 그는 이 시조들을 2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창작했고, 남긴 작품수도 2,254수로 개인 창작으로는 국문학사상 최다이다. 어떤 문학양식으로도 다석의 시조처럼 종교사상의 정수를 이처럼 꾸준히 담아낸 적은 없었다. 다석은 종교계뿐 아니라 국문학계에도 분명한 족적을 남긴 것이다.

3. 詩語로 본 多夕 時調의 特質

동서양의 여러 사상과 종교의 근저에 깔린 공통분모를 모색한 다석은 독자적인 神觀을 수립하고 자신의 종교사상을 시조로 읊었는데, 그 시어가 매우 특이하고 난해하다. 그는 2,200수가 넘는 시조를 남겼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은 없다. 그의 사상뿐 아니라 그가 사용한 詩語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의 시조를 제대로 음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석은 “한 낱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쓰기를 즐겼다.”¹³⁾는 증언과

12)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退溪, 陶山十二曲 跋)

13) 류영모 지음, 박영호 풀이, 『多夕 柳永模의 열의 노래』(이하 『열의 노래』로 약

같이 한 시어에 다양한 의미를 함축했다. 또 그 시어의 표기법이 특이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시어에 의미가 함축된 양상과 그것이 표기된 양상을 살펴 그의 시조의 특질을 찾기로 한다.

1) 詩語의 含意

다석은 독자적인 神觀을 수립한 종교사상가요, 자기의 獸性和 싸워 참 사는 길을 추구했던 구도자였다. 다석은 그의 사상을 매우 특이한 한글 표기로 나타냈는데, 그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시조에 대한 이해도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시조는 그의 생각을 농축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낸 일화가 있다. 이미 소개한 바¹⁴⁾ 있는 주규식과의 대화가 그것이다. 논지의 전개를 위하여 다시 간단히 소개한다.

1960년, 법학도 周揆植이 다석을 좇아 求道의 길로 들어서고자 1년 동안 강의를 들었지만 다석 신앙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다석이 어느 종교를 신앙하는지, 다석이 언급하는 여러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이 물음에 다석은 “나는 신앙이 아니라면 아니지요. 말을 하자면 비교종교를 하지요. 나는 여러 종교 간의 다른 점은 찾아낼 겨를이 없어요. 여러 종교 간에는 반드시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그 공통성을 찾아내어 인식하고 생활화하는 게 나의 인생철학이지요. 어느 종교가 제일 좋은가라고 누가 묻기에 종교는 누구나 제가 믿는 종교가 제일이지요라고 대답해 주었어요.”라고 했다고 한다.¹⁵⁾

YMCA 연경반에서 무려 35년간이나 강의를 한 외형적 경력으로 본다면, 다석을 기독교인쯤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다석은 YMCA에서도 성경뿐 아니라 佛經이나 「老子」 「莊子」 등 동서양의 경전들을

칭), 두레, 2004, 363쪽.

14) 박규홍, 앞의 논문, 10쪽.

15) 『多夕日誌』 제1권, 간행사.

두루 다루었다. 스스로 “내가 성경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유교 경전도 불교의 경전도 다 먹는다. …(중략)… 그리스도교의 성경을 보나 희랍의 철학을 보나 내가 하는 말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한아님이 하여 주실 것이다.”¹⁶⁾고 말한 바와 같이 그의 관심사는 어떤 신앙에 귀의하느냐가 아니라, 그 신앙 혹은 사상의 정점에 있는 ‘절대’나 ‘하느님’으로 표현되는 ‘진리’였다.

그 하느님을 일반에서 상상하는 것과 같은 의인화된 하느님으로 생각한다면 다석의 사상이나 시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석은 모든 유한한 것들을 다 포용하는 무한한 절대적 존재를 ‘하느님’이라 불렀고, 그 하느님을 ‘없이 계신다’고 표현했다. 하느님의 體는 허공, 用은 성령으로, 이 허공과 성령의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는 하느님을 ‘한옹님, 빈탕, 참님’ 등으로 부르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일 허공의 하느님뿐이라고 했다. 다석에게 있어 하느님을 의미하는 ‘빈탕’은 다석 사상의 정수로 들어가게 하는 주요한 핵심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시어로 쓴 시조 한 수를 인용한다.

이 글 이 글 민사를 뵈

빈탕한테 혼곤 꼭대기 꼭문이 너 나 제건
나남 너네게 저 제계 돌아가온은 뉘우치키

16) 『다석어록』, 홍익재, 1993, 129쪽. 다석의 강의는 가까운 제자들의 뜻에 의해 두 차례 속기로 기록이 된다. 한 번은 1956년에서 1957년에 걸쳐 1년 간 기록되고, 한 번은 1960년에서 1961년 사이에 걸쳐 기록된다. 이 어록은 박영호에 의해 정리되어 두 번 단행본으로 출간되는데, 첫 번째 책은 1993년 『씨올의 메아리 多夕語錄/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이라는 긴 제목으로 홍익재에서 간행되었고, 두 번째 책은 2000년 두레출판사에서 『多夕 柳永模 어록』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兩者를 모두 『다석어록』으로 표기하고 출판사로 구별하기로 한다.

숫나니 참 살았도다 참말로 참 옴 아멘¹⁷⁾

다석의 글이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제목에서부터 당황하게 된다.¹⁸⁾ ‘이 글’에 대하여 박영호는 “논어(論語)에 나오는 사문(斯文)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여기에 글이란 요한복음의 말씀(로고스)와 같은 뜻”¹⁹⁾이라고 풀이했다. 제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본문의 첫 시어 ‘빈탕한데’에서 곧 해석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다석의 생각과 그가 사용한 시어의 의미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의 어록에서 몇 대목을 살펴도록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빈탕한데(허공)이다. ‘빈탕한데’란 허공을 내가 순우리말로 말해본 것이다. 백 칸짜리 집이라도 고루고루 쓸 줄 알아야 하듯 우주 또는 그 이상의 것도 내 것으로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빈탕한데(허공)인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1956)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는 허공(虛空)이다. 색계(色界)는 물질계이다. 단일(單一) 허공에 색계(色界)가 눈에 티검지와 같이 섞여 있다.(1956)

하느님은 ‘없는 하나 오직 하나’(無一唯一)이다. 그래서 없이 계시는 빈탕한데(허공)의 하느님이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無一)만이 전체인 오직 하나(唯一)이다. 이러한 영원 절대의 님(하느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의 아들이다.(1957)²⁰⁾

앞에 인용한 시조 초장의 ‘빈탕한데’란 ‘허공’을 다석이 순우리말로 말한 것이고, 그 ‘허공’이 다석에게는 ‘없이 계시는’ ‘오직 하나인’ ‘영원

17) 『얼의 노래』, 359쪽.

18) 국문학자들이 다석의 시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동안은 다석에 관해 밝혀낸 종교계의 성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 『얼의 노래』, 359쪽.

20) 이상 『다석어록』, 두레, 2002, 212-215쪽.

절대의' 하느님임을 어록의 설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빈탕한데'는 여기에 다석의 사상이 송두리째 농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그래서 '빈탕한데'를 이해하는 만큼 이 시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빈탕한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곧 바로 '훈곤'이란 시어를 만나게 된다. 이 역시 다른 설명이 없다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다석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여러 권의 다석 관련 서적을 집필한 박영호의 해설을 참고한다.

'훈곤'이란 한가운데라는 뜻이다. 빈탕한데인 허공의 한가운데 아닌 곳은 없다. 여기에 한가운데란 형이상(形而上)의 일의 나라를 말한다. 꺾데기 현상(現象) 세계가 아닌 불변의 실재(實在)의 세계를 한가운데(中)이라고 한다. 불교의 중(中), 노자(老子)의 중(中), 증용의 중(中)도 이렇게 보아야 바로 본 것이다. 꼭대기는 알파요 꼭문이는 오메가이다. 개체의 상대세계에만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그것을 초월해야 하느님 나라 중(中)에 이를 수 있다.

류영모가 중(中)에 이르는 것을 가온찍기(곤)라고 했다. …(중략)… 우리는 다만 형이상도 아니고 형이하도 아닌 중간 존재로서 한가운데 있는 나 속으로 찾아 들어가 가온찍기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가온찍기는 참나(얼나)를 깨닫는 자각(自覺)이다.²¹⁾

그리고 '꼭대기'와 '꼭문이'에 대해서는 '頂上'과 '尾下'의 뜻이기도 하지만, 전자에는 '하느님의 뜻에 내 마음을 꼭 갖다 댄다는 뜻'이 있고, 후자에는 '입을 꼭 다물었다'는 뜻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꼭 갖다대면서, 탐욕의 입은 꼭 다물고, 진애(瞋恚)의 눈은 꼭 감고, 치우(痴愚)의 下門을 꼭 다물어 탐·진·치(貪瞋痴)를 멀리한다는 뜻이고, 너 나 없이 모두 그렇게 할 때 얼(제)로 한 생명임을 느낀다²²⁾는 것이다.

21) 『얼의 노래』, 363쪽.

22) 『얼의 노래』, 363쪽.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장의 의미를 정리하면, '오직 하나인 하느님(절대 진리)을 깨닫는 것, 마음을 하느님에게 꼭 갖다대면서 탐·진·치(貪瞋痴)를 멀리, 너나 없이 그렇게 하면 얼로 한 생명임을 느끼게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조 해석의 관건인 초장을 간신히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중장 역시 내포된 의미가 만만치 않다. 역시 박영호의 설명 중 주요한 부분을 발췌하도록 한다.

류영모는 한동안 얼나를 '저'라고 한 적이 있다.

나에게는 내 몸이 태어난 것이 대사변이다. 이 사변이 없었으면 사람이 사는 우주는 없었을 것이다.

멸망의 생명인 개체의 제나가 거짓나임을 알고 내버린 다음에 전체(全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 솟나는 것이 회개(悔改)로 뉘우치기다. 누리(세상)에서 우(하느님)로 치켜솟는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와 석가가 보여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게 넣어주는 것을 '너 네' 두 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예수와 석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느님(니르바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마음 속에 넣어주려 애썼다.²³⁾

상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중장의 의미를 재구해 본다면 '나 난 것²⁴⁾ (그냥 의미없이 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 (제나에서) 얼나로 돌아가는 것은 뉘우쳐 하느님께로 치솟는 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장의 해석을 위해서도 역시 박영호의 설명을 참고한다.

23) 이상 『얼의 노래』, 363-366쪽.

24) '나남'은 '내가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열나를 깨달은 이는 사망의 생명인 제나에서 영원한 생명인 열나로 솟난 것이다.

여기에서 류영모가 '솟나니 참 살았도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느님만이 계시는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의 생명인 열나로 솟나는 일만이 참 삶에 드는 것이다.²⁵⁾

류영모는 옴(아옴)을 기독교의 아멘, 힌두교의 옴과 같은 뜻으로 쓰고자 했다.

류영모가 '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느님의 뜻을 좇겠다는 것이다.²⁶⁾

종장은 초·중장에 비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나, 역시 다석 나름의 함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장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하느님의 생명인 열나로 솟나니 참 살았습니다, 참말로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풀이를 한데 모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

오직 하나인 하느님을 깨닫는 것, 마음을 하느님에게 꼭 갖다대면서 탐·진·치를 멀리, 너나 없이 그렇게 하면 열로 한 생명임을 느끼게 되는 것
나 난 것 (그냥 의미없이 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 (제나에서) 열나로 돌아가는 것은 뉘우쳐 하느님께로 치솟는 일
하느님의 생명인 열나로 솟나니 참 살았습니다, 참말로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2,200수가 넘는 시조 중에서 한 수를 살핀 데 불과하지만, 다석의 사상 전체를 보는 듯하다. 이렇듯 그 시조의 시어 하나하나에는 자신이 부여하는 고농도의 종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25) 이상 『열의 노래』, 366쪽.

26) 이상 『열의 노래』, 157쪽.

52세부터는 해혼을 선언하고 금욕생활에 들어가서, 1일 1식과 잣나무 널판 위에서 기거하는 생활을 기세하기까지 40년간 계속하며, 하루를 평생처럼 사는 ‘一日一生主義’로 일생을 산 다석의 실천궁행한 힘을 그의 시조 시어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 詩語의 表記

앞에서 다석 시조의 시어들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다석 사상의 핵심에 접근하는 데 있어 매우 요긴한 단어의 하나인 ‘빈 당한데’로 시작되는 그 시조의 시어에 내포된 의미(connotation)는 다석의 사상 전체가 응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깊은 종교적 사색을 담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그 시어의 표면적 의미(denotation)를 파악하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극도로 절제되어 있는 시적 표현은 매우 특이한 한글 표기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간단치 않다.

다석이 사용한 용어와 그 표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필자가 첫 논문에서 ‘씨울’처럼 우리말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 경우, ‘알(識), 봐(視), 듣(聽), 맡(嗅), 먹(食)’처럼 우리말 동사의 어간 부분만으로 명사형처럼 사용한 경우, 『』처럼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한 기호를 사용한 경우 등을 언급한 바²⁷⁾ 있다.

다석은 자신이 일기에 쓴 시조를 후대의 누가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 즉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 듯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한글로 보았다. 그래서 다석이 “한글을 하느님의 계시가 담긴 그릇으로 보았다”²⁸⁾는 견해가 표명되기도 했다. 그리고 ‘시조’

27) 박규홍, 앞의 논문, 18-20쪽.

를 그 언어를 담아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 양식으로 봤음이 분명하다. 20년 간 지은 2,200여 수의 시조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석은 신앙과 연결된 확고한 시조관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다석은 자신의 시조에 대해 “나는 여러 말을 시조형으로 글자를 묶어보았는데 누가 보면 시조(時調)가 아니라 할지 모르나 나는 내대로 시조가 될 수 있다. 내 몸을 갖다가 운(韻)으로 하고 조금 느낌을 통하게 하여 이러한 시가 되었다.”²⁹⁾고 했다. 시조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시조를 쓴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는 다석의 이 언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류영모는 사람의 몸은 악기(樂器)라고 말하였다. 옛날에는 음악을 울려(律呂)라고 하였는데, 여(呂)자가 바로 등뼈를 그린 글자라고 하였다.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조율(調律)이 되어 있어야 하듯이 사람의 몸은 조절(調節)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느님께서 타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하)』, 40쪽.)는 증언을 감안하면, 다석은 자신의 시조를 ‘하느님이 자신을 연주해서 내는 음악’으로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니까 “내 몸을 갖다가 운(韻)으로 하고 조금 느낌을 통하게 하여 이러한 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온몸으로 ‘律呂調陽’한 결정체가 ‘시조’라고 여겼을 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20년을 꾸준히 자신의 종교사상을 담는 시조를 지었다.³⁰⁾

자신의 온몸으로 ‘律呂調陽’한 결정체가 ‘시조’라고 여긴 것은 그의 신앙과 바로 직결되는 생각이기도 하다. 다음의 언급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은 피리와 같다. 마음속이 비어야 하느님의 가락이 흘러나온다. 피리소리의 가락이 하느님 뜻이다. 빈 마음에 하느님의 얼이 비친다. 그래서 장자(莊

28) 이정배, 『한국 개신교 전위(前衛) 토착신학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3, 261쪽.

29) 『다석어록』, 홍익재, 242쪽.

30) 박규홍, 앞의 논문, 15-16쪽.

子)가 허실생백(虛室生白)이라고 했다. 나는 피리요 피리를 부는 이는 하느님 이시다. 피리에서 아름다운 가락이 흘러나온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 음이 비어야 한다. 허공이 피리의 본질이요 가락이 피리의 생명이다. 예수는 따 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한없이 솟아 흐른다고 했다.(1956)³¹⁾

“내 몸을 갖다가 운(韻)으로 하고 조금 느낌을 통하게 하여 이러한 시가 되었다”는 말과 “나는 피리요 피리를 부는 이는 하느님 이시다. 피리에서 아름다운 가락이 흘러나온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는 언급을 연결시켜 보면, 자신은 피리요 시조는 곧 하느님이 부는 피리소리 라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

앞에서 예시한 시조에서 ‘빈탕한데, 혼곤, 돌아가온, 뉘우치키, 솟나 니’ 등의 시어처럼 우리말을 독특하게 활용하여 그 함축된 의미는 고사 하고 표면적 의미조차 파악하기 어렵거나, ‘꼭대기, 꼭문이, 너, 나, 나, 남’처럼 표면으로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나 그 내면에는 다석이 깊은 철학적 해석이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시조, 어떤 시가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표기 방법이다.

특별한 조어는 아니지만 잘 쓰이지 않는 표현도 곧잘 사용하곤 했다. 그런 시어가 보이는 시조 한 수를 살펴보도록 한다.

참 쉽에 들과져

돈 씨 지낸 길 갈가리 갈래기도 하더니만
힘써 오를달 데는 쉽 없난 숨 쉽으로써만
일없어 쉽이 아니고 참 쉽에만 들과져

이 시조는 다석이 78세 되는 해인 1968년에 쓴 것이다. 다석은 1956년 4월 25일, 1년 뒤에 죽는다는 사망 예정일을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러

31) 『다석어록』, 두레, 213쪽.

니까 이 시조를 쓴 때는 죽는다는 날에서 이미 11년이나 더 산 셈이다. 다석은 자신이 예정한 사망일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만 ‘죽음’은 늘 그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여기의 ‘참 쉽에 들과저’라는 것도 영원한 안식에 들고 싶다는 말이다. 다석에게는 그것이 하느님 품 속에 들어간 神人合一의 경지요, 至善의 자리라고 여긴 듯하다. 그래서 위와 같은 시조가 나왔을 것이다.

초장에서 보이는 ‘갈가리’와 ‘갈래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특별히 만든 말도 아니다. ‘갈가리’의 사전적 의미는 ‘얇체없이’이고, ‘갈래다’는 ‘변덕스럽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돈 써 지낸 길’ 즉 돈을 지불해야 영위할 수 있는 인간들의 현실적인 삶은 얇체없이 탐하고 변덕스러워서 참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석의 언어구사 능력은 이런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이어지는 중장과 종장에 보이는 시어들의 표면적 어의 해석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그러나 내포된 의미는 역시 깊다.

“힘써 오를달 데”는 힘써 올라야 할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쉽 없난 숨 쉽으로써만” 즉 숨없는 숨, 숨 너머의 숨, 곧 ‘얼숨을 쉬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체인 하느님은 허공이요, 성령(불성)이기에 얼로 숨쉬는 것이 전체와 얼숨으로 교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석이 사용했던 ‘얼숨’이라는 말과 ‘제나’ ‘얼나’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얼숨을 쉰다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을 숨쉬어 진리인 얼나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성령을 제나의 수성(獸性)을 다스리는 권능(authority)을 가져 수성을 이김으로 새사람이 되게 한다.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음의 생각으로 숨쉬어 얼나로 솟나야 한다.³²⁾

32) 『다석어록』, 두레, 116-117쪽.

“이제 여기의 이 나라는 존재는 거짓 나이지 참나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거짓이라 하잘 것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껏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참인 하느님이다. 참은 일생뿐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찾아야 한다. 인류가 그칠 때까지 찾아야 한다. 온 인류가 다 힘을 쏟아서 마침내 알아내야 할 것은 참 하나이다. 그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참은 하느님의 얼이요 뜻이다. 참은 곧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참은 아주 가까운데 있으니 내 속에 있다. 참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은 제나(自我)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참나인 하느님을 찾을 때만 존속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³³⁾”

종장에서 다석은 중장에서 의미하고 한 것을 다시 확인한다. 그것은 ‘일없어 쉬’이 아니고 ‘참 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석은 말하기를 지금 이 나라고 하면서 사는 나는 ‘제나(自我)’로 ‘참나’가 아니라고 한다. 멸망의 생명인 제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 깨닫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일 다 그만두고 먼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참나인 얼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만으로도 다석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매우 낮은 용어의 일면을 접할 수 있었다. 다석이 우리말을 어떻게 구사하고 어떻게 표기했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다만, 본고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석 시조의 시어마다에 함축되어 있는 그의 종교사상은 그 표기까지도 독특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4. 결론

이 논문은 국문학사에서 차지할 작지 않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다석 류영모의 시조를 논구하기 위한 두 번째의

33) 『다석어록』, 두레, 116쪽.

시도이다. 시문학사에서 종교를 수용했던 작품들 가운데 다석의 시조가 차지할 위상과 다석 시조의 시어에 내포된 함의와 그 표현 방법을 고찰하는 것으로 그의 시조의 특질을 구명하고자 했다. 그 성과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원시종합예술에서부터 지금까지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시가문학이 적지 않았다. 종교건 문학이건 모두 인간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향가에 당시 신라인들의 정신과 생활 속에 깊이 침윤된 불교가 용해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려 초 균여대사의 <보현십종원왕가>는 이전의 향가들보다 불교 교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이 작품은 '세속적인 말로 중생을 깨치도록 지었다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문학이다. 불교가 문학을 만나 빚어낸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偈頌을 들 수 있다. 계송은 순도 높은 종교문학이라고 하겠다. 또 고려조의 慧謙은 宋詞 詞牌의 하나인 漁家傲조의 노랫말 형태를 취한 <어부사> 4수를 지었는데, 이 역시 불교적 사유를 어부사로 형상화한 것이었다.

불교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던 조선조에 와서는 대중들의 마음을 잡아둘 자구책이 필요했다. 난해한 계송이나 기타 선시들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때 주목된 것이 가사문학으로, 이렇게 지어진 불교가사는 향가 이후 가장 대중화된 종교적인 시문학이라 할 수 있다. 가사는 시조에 비해 대중을 설득하는 기능이 훨씬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교계에서도 가사문학에 주목했다. 도교 가사, 천주교가사가 창작된 것이 그 결과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생존했던 다석은 젊은 시절 가사문학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27세 때인 1917년 6월에 발간된 『청춘』지에 <無限大>라는 제목의 가사를 실은 적이 있다. 내용은 역시 자신의

종교사상을 밝힌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법도 하다.

그러나 다석이 몇 편의 가사를 더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전의 것으로는 〈무한대〉가 유일하다. 이후에는 가사를 지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 대신 시조 양식에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담아냈다. 다석은 종교적 함의를 시조문학 양식에다 농축하여 무려 2,200수가 넘는 시조를 남겼다. 이것만으로도 국문학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사에 비해 비교적 종교와는 먼 거리에 있는 문학양식으로 여겨졌던 시조가 다석에 의해 종교사상의 정수를 싣는 최적의 그릇으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종교사상의 농축되어 있는 그 시조의 詩語는 매우 특이하다. 시어마다에 그의 神觀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축된 의미를 지닌 시어를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표기법으로 나타냈다. 시어에 내포된 의미(connotation)뿐 아니라 그 시어의 표면적 의미(denotation)까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의 용어는 특이하다.

다석은 한글을 자신의 사상을 온전히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로 여긴 듯하고, 시조는 그것을 담을 가장 적당한 문학양식으로 본 듯하다. 자신이 피리라면 시조는 하느님이 부는 피리소리라는 것이다. 난해한 그의 시조는 누구에게 보이느냐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담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결과로 보인다.

시어 하나하나의 해득이 어렵다고 하여 그의 시조를 더 이상 방기할 수는 없다. 계속 후속 작업이 이어져 국문학사상 최다일 뿐 아니라 가장 독특한 그의 시조문학을 온전히 국문학 안으로 끌어들여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均如傳』(國語國文學資料叢書4), 二友出版社, 1981.
『多夕日誌』(1-4권), 弘益齋, 1990.
김주곤, 『韓國詩歌와 忠孝思想』, 국학자료원, 2000.
류영모 말씀, 박영호 엮음, 『多夕語錄』, 흥익재, 1993.
류영모 지음, 박영호 풀이, 『多夕 柳永模의 얼의 노래』, 두레, 2004.
朴奎洪,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時調學論叢』 22집, 2005, 5-25.
_____, 時調의 社會的 機能 考察, 『時調學論叢』 19집, 2003, 127-153.
朴魯堉,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박영호, 『多夕 柳永模 語錄』, 도서출판 두레, 2002.
_____,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하), 두레, 2001.
_____, 『씨을 -多夕 柳永模의 生涯와 思想』, 弘益齋, 1985.
_____, 역저, 『莊子 -다석 류영모의 사상과 함께 읽는 장자』, 두레, 1998.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형실출판사, 1982.
_____, 『韓國 古詩歌의 研究』, 형실출판사, 1995.
이광수, 『金剛山遊記多』, 실천문학사, 1998.
이정배, 『한국 개신교 전위(前衛) 토착신학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3.
조동일, 『국문학통사(1-5)』(제3판), 지식산업사, 1994.
崔喆·安大會 譯注, 『譯注 均如傳』, 새문社, 1986.

〈Abstract〉

The Features of Daseuk Ryu, Yeungmo's Sijo

Park Kyu-Hong

Daseuk Yeungmo Ryu, the author of the most Sijo poem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his Sijo poems were once introduced by me, which is a small part of his world of Sijo, though. The goal of this study is, as its succeeding research, to reveal the features of

Daseuk's Sijo poems and their significance in detail.

There have been not a few poems which accepted religious cont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Especially, Gesong in the Buddhist Zen is a typical example of the encounter between literature and religion. What is more, Buddhism was in alliance with Hyang-go in the Silla dynasty and with Gasa in the Chosun dynasty. Gasa was effectively used in accepting Buddhism as well as Taoism and Catholicism.

Sijo has seemed to be farther from religion than Gasa has. However, Daseuk, a renowned religious thinker in the 21st century, expressed his religious ideas in Sijo, which has not been found in the history of Sijo before. Considering Hangeul as a special tool of expression, Daseuk delivered his condensed ideas in poetic dictions in a unique way. Each word in his Sijo poems implies his religious ideas, which are marked in a special transcription. It makes his Sijo difficult to understand.

Yeungmo Ryu's Sijo poems should not be left unnoticed just because they are hard to understand but should have follow-up researches so that Daseuk's Sijo, which is the most in number and the most unique in its style, have to be embraced in Korean literature.

Keywords : Hyang-ga, philosophy of religion, Connotation, Denotation, Korean Language, Sijo, Literary Form, Significance, Poetic Words

논문투고일 : 2005년 11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월 7일